

## 2019년 공연장 대관 공모 심의 총평

### ○ 일시 및 장소

- 1차 연극 : 2018. 12. 6(목) 10:3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1차 무용 : 2018. 12. 4(화) 14:0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2차 통합 : 2018. 12.11(화) 10:3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달중, 박재근, 배선애, 안신희, 이노연, 이만주, 장계환, 정안나, 홍창수

- 2019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대관 공모에 총 159건이 신청하여 최종 53건을 선정되었다. 예년과 달리 이번에는 신청 단계부터 아르코예술극장은 국제규모 혹은 축제 위주로, 대학로예술극장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부여했다. 극장의 운영에 대규모 축제와 민간단체의 분배는 극장 정체성은 물론 축제의 정체성까지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유효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 심의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심의는 연극분야(연극, 뮤지컬, 기타)와 무용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별 심의위원 4명을 위촉하고 예술위원회 관계자 한 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였다. 연극 분야는 연극 연출가, 극작가, 뮤지컬 연출가, 평론가의 4명, 무용 분야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의 세 분야 각각의 안무가와 춤 비평가, 이렇게 4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각 분야 별로 작품의 예술성, 극장의 정체성 부합 여부, 실제 제작의 수행 가능성과 향후 영향력 등의 항목을 놓고 신청 서류를 검토했으며,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면서 다수가 동의하는 작품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모든 심의위원들은 공정심사에 대한 서약서 작성, 심의 회피 사항 확인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 원칙을 공유하고 철저하게 준수하였음을 먼저 밝혀둔다.
- 연극 분야의 심의에서 오페라 등의 음악 공연은 그에 적합한 다른 공연장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연극제나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는 전문단체들에 대한 평가는 그 행사의 역사성과 중요성, 그간의 성과와 행사를 주관하는 전문단체의 열정과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민간단체에 대한 평가는 신청 서류를 토대로 작품의 예술성, 단체의 활동 내역과 평가, 창조력과 성취도를 중심으로 심의하였다.
- 무용 분야의 심의에서는 아르코예술극장은 지속성과 예술성이 검증된 국제 춤 축제 혹은 전국규모의 행사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

개인단체의 작품을, 소극장은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 특히 발전가능성이 보이는 젊은 무용가의 작품을 선정하고자 했다. 명성 있는 축제라고 하여도 전통무용 성격이 강한 것은 축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다른 공연장이 더 어울린다는 의견으로 제외되었고, 국제 춤 축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연장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 그리고 외국단체와의 공동 작업임에도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도 제외되었다.

- 2차 심의는 각 분야별 1차 심의 선정 결과를 놓고 연극 분야 2명의 심의위원과 무용 분야 2명의 심의위원이 함께 통합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공연장 대관 일정 조정과 대상 작품(혹은 축제)의 우선 순위에 대한 토론을 통해 최종 대관 작품을 선정했다. 통합심의가 개별 예술장르의 1차 심의보다 상대적으로 수월했는데, 그것은 각 분야별 대규모 축제의 대관 신청 일정이 겹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이유이지만 무엇보다 1차 심의에서 우수한 작품들(혹은 축제)을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선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의위원들은 가능하면 1차 선정된 작품(혹은 축제)을 탈락시키지 않기 위해 긴 시간 토론하며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 국제규모의 축제는 외국 단체와의 협업으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 배정했고, 여러 국제규모의 축제가 서로 일정이 겹치는 경우 한 축제를 탈락시키기 보다는 다른 극장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로 했으며, 연극과 무용의 일정이 겹치는 경우 지원신청 기간을 조정하거나 시기를 옮기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 그럼에도 탈락한 작품들이 있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봄과 가을을 선호하는 것은 연극과 무용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상인데, 이 시기를 피해서 지원하는 것도 대관 사업의 선정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 1차와 2차 심의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한 것은 제출한 서류의 부실함이었다. 심의가 서류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속에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수 단체들이 부실하고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세부사업계획서가 필수제출서류임에도 미제출한 단체가 다수 있었으며,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한다는 안일한 판단 때문인지 대규모 축제 및 국제행사임에도 빈 칸을 채우지 못한 허술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계획서가 잘 준비되었다고 해서 실제 작품이나 축제가 훌륭한 것은 물론 아니다. 계획서에 비해 작품 제작의 수행 능력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서류 심사가 기본인 공모 사업에서는 적어도 진정성을 갖고 성의 있고 충실한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축제의 연속성과 기존 평가를 고려하

였으나 앞으로는 서류 심사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 특히 국제규모의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최소한 3개월 전에 세부계획서를 제출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 가능한 한 많은 단체들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네 개의 공연장에, 제한된 대관일 로 인해 많은 단체를 수용할 수 없음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선정된 단체는 계획서에 서술한 대로 성실하게 만든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기를 바라며, 아쉽게 탈락한 단체들은 다른 극장이나 공연장에서 꼭 공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공연장 대관 심의위원 일동